

목어

의원님의 말버릇

부처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곧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과 말은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중생의 말도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제멋대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은 곧 인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만 열리면 '육두문자'가 오간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요즘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예외는 아니다. 방송과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뭐? 이 X X야', '견방진 X X, 너는 형도 없고 아버지도 없느냐.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을 하니까 국회 질이 떨어지지', '이 X X가 정말 깡보어. 후배야들 X X, 싸가지 없는 놈' 등등 격높으신(?) 의원님들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말들이 오갔다고 한다.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 국가적 사안을 다루고 의논하는 성스러운 국회의 사당의 회의실에서 이처럼 막된 언사를 쓰며 막가는 사람들이나 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의 눈살이 좁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들이 시정잡배들이나 하는 갖대질과 욕지거리를 해댄다니, 더구나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이 비춰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 서울퍼지기까지 한다. 도대체 국민들의 시선이 두렵지도 않은지 참으로 궁금하다.

우리나라에는 의원님네가 많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은 물론 각 종교단체에서도 각종 의원이 많다. 그런데 그 많은 의원님네들의 상당수가 육두문자를 즐겨 사용한다고 한다. 마음에 무엇을 담았길래 그렇게 험악한 말들을 좋아하는지 한심한 노릇이다.

<법구경>에 "마땅히 거친 말을 하지 말지니, 말을 할 때는 마땅히 그 과보를 무시워야 한다"는 말씀이 있다.

많은 남에게 도움이 되고 덕이 되게 전해야 한다. 한 나라의 국정을 이끄는 국회의원들의 말버릇이 그 모양이니 70년대 캠페인인 '고운말 쓰기 운동'을 다시 대대적으로 벌여야 할 판이다. 그런 의원님네들에게 감히 선(禪)의 의미를 깨쳐 보라고 한다면 가당치 않았지만 그래도 흥내라도 내다보면 부끄럽다는 생각쯤은 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법사(동국대 정각위원장·본지 논설위원)

원로의원들은 달랐다. 40년 이상 수행에 전념해온 어른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10월 20일 조계종 원로의장을 뽑기 위해 열린 원로회의에서 원로의원들이 서로 의장 자리를 양보하는 겸양의 미덕을 보여줘 화제가 되고 있다.

원로의장은 후보자 없이 호선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원로의장을 뽑기 위해 구성된 9인 전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현 부의장 종산스님에게 의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원로의장은 사리에 밝고 합리적인 분이여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종산스님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껄적 뒀었다. "봉암사 결사에도 참여하셨고, 총무원장 소임도 해보셨으니 법전스님이 맡아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법전스님이 손을 저었다. "여러 스님들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야 합니다." 재차 종산스님에게 의장을 맡으라

역시! 원로스님

원로의장 서로 맡으라 아름다운 양보 '귀감'

고 권유했다. 논쟁 아닌 논쟁을 벌인 원로의원 스님들은 2시간여만에 회의장 문을 열었다. 그리고 법전스님에게 의장을 맡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원로의장이라는 소임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막강한' 자리다. 종정을 추대하며, 종헌 개정안과 총무원장 인준권, 종회 해산

권과 종회 해산시 종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기구가 원로회의다. 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를 이끄는 자리가 원로의장이자 대. 그러나 어른들이 보기에는 남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리일 뿐이다. 그래서 원로의장 소임은 빛나는 자리이다.

조계종은 최근 몇 차례의 큰 선거 때마다 불협화음을 일으켜 체면을 구겼다. 98년의 경우, 총무원장 선거에 사형사제가 함께 출마했으며, 급기야는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불상사를 겪었다. 교구분사 주지 선거에서도 표를 확보하기 위해 승가의 위신마저도 저버리려는 비관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선거 폐지론이 나오기도 했다.

조계종 중앙총회는 2일 12대 후반기 종회를 이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원로의원들이 몫소 보여준 '할'에 오체투지로 답해야 할 차례이다.

정성운 기자(swjung@buddhopia.com)

누가 될까

조계종 중앙총회 후반기를 이룰 종회의장 선거가 2일 치러진다. 이와 아울러 태고 천대 진각종 등 불교를 대표하는 주요 종단 총무원장의 임기도 대부분 연말로 끝나 새 인물이 누가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계종 종회의장 선거에는 지하스님과 청화스님의 출마가 거의 확실시된다. 지하스님은 보수적, 청화스님은 개혁적인 이미지를 지녔다는 평. 지하스님은 종회 내에서 가장 큰 모임인 무등회와 청림회에 밀고 있다. 청화스님은 일여회와 원흥회에서 낸 후보. 계파별로 지지 후보를 일찌감치 결정했기 때문에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10명 안팎의 종회의원들의 의중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 당락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지하스님



○청화스님



○인곡스님



○운산스님



○중연스님



○인곡스님



○현명대장사



○회정대장사

조계종 종회의장 선거 지하-청화스님 '각축'

조계종 중앙총회 의장은 전·후반기로 나눠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재직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된다.

태고종 인곡 총무원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 따라서 오는 23일 열리는 제 79회 정기 중앙총회에서 새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현 총무원장인 인곡스님이 다시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운종스님(종정연구원장), 대운스님(종회 부의장), 중연스님(총무원 회주) 등이 출마에 오르고 있다.

태고-천대 총무원장 임기 올말까지

인곡스님은 현 원장으로서 안정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고 장악력이 있어 유리하다는 분석이며 운산스님은 총무원장으로서 오랜 총무원장 경력을 바탕으로 정 관계 등에 인연이 많아 대외교섭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원만한 성격의 중연스님은 비교적 젊은 층의 신망을 얻고 있어 초선의원이 될만 가까이 되는 이번 총회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천대종 운역 총무원장의 임기도 12월이면 끝난다. 12월 초 열리는 총회에서 새 원장을 선출한다. 현 원장인 운역스님의 재임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것이 주위의 전언.

진각종은 내년 4월 정기총회를 열어 새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새 원장 후보로 현명 종회의장과 회정 총무원장, 진산 사람원장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진각종은 최근 단임으로 패 있는 총무원장 임기를 중심으로 개정함에 따라 새 총무원장부터 증임제가 적용된다.

이경숙·정성운 기자 (gslee@buddhopia.com)

“북한의 불화까지 수록 목표”

인터뷰 한국의 불화 1차 20권 완간 범하스님

통도사, 송광사, 직지사, 월정사, 화엄사, 선운사 등 11개 본말사와 대하 및 사립박물관에 소장된 불화 1천7백여 점을 사진으로 정리한 <한국의 불화> 1차 20권이 완간됐다. <한국의 불화>는 석정(종묘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기능보유) 스님과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인 범하 스님 등이 중심이 돼 지난 10년간 전국 사찰을 돌며 조사·수집·촬영해 펴낸 도록집이다. 국내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50년 이상된 불화의 80% 가량을 담았다. <한국의 불화> 편찬을 주도적으로 이끈 범하 스님을 만나, 간행 목적과 과정 등을 들었다.

— <한국의 불화> 간행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국의 불화는 감상 위주의 일반화화와는 달리 정당한 불교도가 그려진 종화화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간행된 한국불화의 내용은 개략적이고

단편적인 정석성스님과 10년동안

이를 보다 체계적이라고 중

합적으로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산재해 있는 불화를 종합하여 도록으로 편찬함으로써 불자들의 신앙심은 물론 학자들의 연구에도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귀중한 불교문화재로서 불화가 더 이상 훼손되고 유실되는 것을 막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89년도에 송광사 대웅전 탱화 조성 불사를 위해 전국의 탱화를 돌아본 석정 스님이 보존관리의 한계를 실감하고, 이 일에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나 전국 사찰에 봉안된 탱화를 조사해서 자료집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그래서 '정국사찰 불화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때가 90년도입니다. 예매 대상인 성보와 문화재 차원의 유물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

다. 수 십리 산길을 무거운 사진 촬영장비를 메고 도착하면 주인측에서 반대 하기 일쑤이고, 본·말사 주 소문에 엄청난 사찰로 등재된 곳인데도 빈터만 남아 있는 곳도 있어 힘들게 산행을 한 우 리들의 땀을 흘려놓기도 했습니다. 조사원들은 한달 평균 보름 정도를 현장에서 보낸 셈입니다. 오전 8시 조사를 시작하면 사안에 따라 조사시간은 달라지지만 보통 밤 12시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1차분 20권을 완간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2005년까지 1차 조사에서 제외된 고운사, 백양사, 쌍계사, 선홍사 등과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불화를 조사해 매년 4권씩 총 40권의 한국의 불화집을 최종 완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 소장품이나 국외에 있는 불화는 물론 북한에 있는 불화 역시 조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촬영된 불화들은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해 조관할기 때문에, 여력이 생기면 CD롬으로도 제작할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불화는 <한국의 불화> 편찬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칠 게 아니라 목각탱을 비롯해 불교 조각 분야, 금속공예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 명실공히 한국의 불교문화를 집대성하는 출판물이 되어야 하며, 또 이를 통해 불교조형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리들의 맥을 풀어놓기도 했습니다. 조사원들은 한달 평균 보름 정도를 현장에서 보낸 셈입니다. 오전 8시 조사를 시작하면 사안에 따라 조사시간은 달라지지만 보통 밤 12시를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1차분 20권을 완간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2005년까지 1차 조사에서 제외된 고운사, 백양사, 쌍계사, 선홍사 등과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불화를 조사해 매년 4권씩 총 40권의 한국의 불화집을 최종 완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 소장품이나 국외에 있는 불화는 물론 북한에 있는 불화 역시 조사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촬영된 불화들은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해 조관할기 때문에, 여력이 생기면 CD롬으로도 제작할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불화는 <한국의 불화> 편찬 작업이 진행되면서 그칠 게 아니라 목각탱을 비롯해 불교 조각 분야, 금속공예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 명실공히 한국의 불교문화를 집대성하는 출판물이 되어야 하며, 또 이를 통해 불교조형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료집을 만들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89년도에 송광사 대웅전 탱화 조성 불사를 위해 전국의 탱화를 돌아본 석정 스님이 보존관리의 한계를 실감하고, 이 일에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나 전국 사찰에 봉안된 탱화를 조사해서 자료집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그래서 '정국사찰 불화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때가 90년도입니다. 예매 대상인 성보와 문화재 차원의 유물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은
인쇄인 : 김규석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www.buddhopia.com
www.mahamail.co.kr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936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93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경치동 110-33 ☎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갈월사 영탑(靈搭)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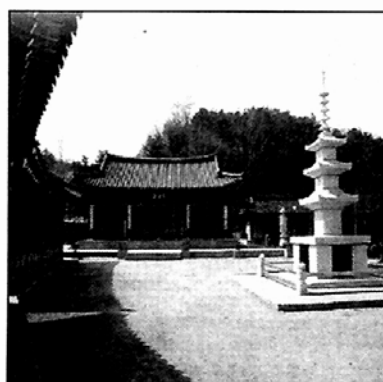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흥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성된 영탑

참다운 효도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있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동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갈월사 경내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댁님의 초제부터 77세와 49세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담 하나만 새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담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관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 수 있습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기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기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